

영재아의 성격유형과 자아상태 분석

이 순 주

박 찬 웅

한밭대학교

경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영재아를 대상으로 남녀 영재들의 성격유형과 자아상태의 차이 그리고 성격유형의 기질별, 기능별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아들의 성별에 따른 성격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판단방식 측면에서 남아와 여아 간 유의한 차가 나타났으며 자아상태에서는 영재 여아가 남아보다 자유스런 어린이자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재아의 기질별 기능별 성격유형의 특성에서는 영재 집단이 한국판 표준화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질면에서는 한국판 표준화에 비해 NT형의 분포가 월등히 높은 반면 SJ형의 분포는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면에서는 NT형의 분포가 한국판 표준화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리적 기능유형에 따른 자아상태의 분석 결과에서 영재아의 자아상태유형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기준으로 삼는 감정형(F)과 사고형(T)의 성격특성과 관련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영재아, 성격유형, 자아상태, Ego-gram 검사, MMTIC검사

I. 서 론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고급 인력자원의 개발만이 자국 발전의 주요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이미 오래 전부터 영재교육을 실시해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본격적인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아동 사이에 존재하는 개인차로 인해 각 아동마다 지적 수준이나 재능에 따라 소화해 낼 수 있는 학습 내용의 수준과 양이 다르고 따라서 아동의 수준에 따라 학습방법과 학습자료, 학습내용이 달라야 한다는

교신저자: 이순주(edudise@hanmail.net)

교육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특히 일반 보통아들과 구별되는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혹은 그럴 가능성을 지닌 영재들에게는 일반아와는 다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아동의 영재성은 매우 복잡적이고도 다양한 현상이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영재성에 대한 진단 방법과 진단 도구의 개발 그리고 적절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영재성의 개념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제시된 정의만 하여도 100여개가 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영재성의 정의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 중의 하나는 바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영재성의 정의 속에 지적요인뿐만 아니라 정의적 요인 같은 다차원적 내용들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 영재교육 전문가들은 영재들이 지니는 인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들의 성격특성이나 심리적·인성적 특성 그리고 성차, 행동적 특성들을 분석함으로써 정의적 영역에서의 영재아의 특성을 밝히려는 노력들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영재의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영재 아동에 대한 교육의 효율과 이들의 성취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는 영재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활동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영재교육의 선진 국가들은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오고 있다. 즉 일찍부터 영재교육이 실시되었던 미국과 러시아 등의 나라에서는 심리학자 및 카운슬러, 특별교사를 통해 여러 가지 보조 서비스를 투여함으로써 영재들을 위한 심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또 여러 가지의 조사 활동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 조사 활동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활용되는 자료 중의 하나가 바로 Jung의 심리유형이론에 기초한 성격유형과 Berne의 교류분석이론에 기초한 자아상태이다.

Jung의 이론을 근거로 성격검사를 개발해낸 Myers와 McCaully(1985)는 성격유형에 따라 학업성취가 좌우되며, 높은 지적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성격유형에 맞는 학습양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Tallmage와 Shearer(1969)는 학습자의 성격에 따라 비록 같은 교육장면일지라도 작용하는 개인의 속성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학습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한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고 인식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판단하는가의 문제는 심리적 기능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김정택, 심혜숙, 1993). 또한 정순진은 자신의 연구결과(2007)를 토대로 또래집단보다 높은 지적수준에 있는 영재 아동들이 다양한 성격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심리유형과 관계가 깊으며 영재학생들의 심리유형의 특성은 학습스타일 뿐만 아니라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 관여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영재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재들의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영재아들의 심리적·정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연구의 영역 속에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성격유형과 자아상태에 대한 자료가 중요한 한 부분으로 차지하게 된다. 인간의 성격은 세 가지 자아상태(Parent, Adult, Child)로 구성되어 있으며(Berne, 1957) 이러한 자아상태는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인간의 심리적 에너지의 양을 독특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어서 성격 전체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이 강한가를 알 수 있게 한다(이병래, 1998). 이에 앞서 진행된 여러 선행연구(Berne, 1964; 이현정, 2006; 정선심, 2006)에서는 Jung의 이론에 기초한 성격유형과 Berne의 이론에 기초한 자아상태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성을 밝혀오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인간관계 형성이나 상담, 학생지도 등의 영역에 활용함으로써 연구 대상들의 긍정적인 심리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달리 영재교육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도 영재들의 정의적 특성에 기초한 여러 가지 교육적 시도들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영재들은 인지적 특성뿐 아니라 행동특성이나 성격특성을 포함한 여러 부분에서 일반학생과는 다른 차이점을 지니고 있어 영재아들에게는 일반교육과는 차별화된 교육서비스와 심리지원 활동들을 제공되어야만 한다. 이에 영재아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 가능성과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지적 능력 및 영재성뿐만 아니라 정서 및 심리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영재아의 성격유형과 자아상태의 분포 그리고 이전의 선행 연구를 통해 제시된 Jung의 성격유형과 Berne의 자아상태 유형간의 관련성이 영재아 집단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밝혀냄으로써 영재아의 심리적·정의적 특성에 기초한 교수학습 방법 및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심리지원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영재아의 성격유형과 자아상태의 분포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를 알아보고자 한 것은 통문화적 비교연구(cross-cultural studies)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러한 성차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가 영재아 집단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밝혀내고자 한 것이다. 즉 여러 통문화적 비교연구(Waldrop & Halverson, 1975)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여성이라고 교육한 전통적인 양육 방법이 성차적 행동 특성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전통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책임감, 합리성, 객관성을 요구받던 남아에게는 비판적 사고성향이나 성인자아가 강화된 반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남편에 대한 순응적 태도를 교육받던 여아에게는 자유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아상태나 외향적 기질은 낮아지고 말 잘 듣는 어린이처럼 순응하는 자아상태는 높아졌다는 점이다(성은현, 1998).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성차에 따른 행동 양식 기대와 양육 방법이 한 개인의 성격유형과 자아개념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방희정(1996)과 이순형(1995), 장휘숙(1996)의 연구에서 남녀에 대한 전형적인 성격 특성이 정리된 바 있으며, 성은현(1998)과 조숙자(1996), Best와 Williams(1993)의 연구에서는 남녀에 따른 이고그램에서의 차이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기질별 기능별 성격유형은 인간관계나 일처리 방식 그리고 가시적 행동특성과 취미, 업무처리 등에 있어서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김정택, 심혜숙, 2000) 이러한 성격유형을 교수학습 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능력을 개선시키는 데에 적지 않은 효과를 주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Fairhurst & Fairhurst, 1995; Schurr, Henriksen, Alcorn & Dillard, 199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질과 기능에 따른 영재아의 성격유형을 파악하여 이들의 심리적 선호경향에 적합한 교육적·심리적 지원 활동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가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며 아울러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영재아의 성격 및 자아상태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이들의 심리적 상황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영재아의 심리적 특성에 맞는 학습지도 방안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재아의 성격유형 분석

- 1) 영재아의 성격유형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 2) 남녀 영재의 기질별 기능별 성격유형의 특성은 어떠한가?

2. 영재아의 자아상태 분석

- 1) 영재아의 자아상태는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 2) 영재아의 자아상태는 심리적 기능유형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영재아의 성격특성

영재들의 성격특성에 대한 이해는 영재교육의 교수·학습 측면뿐만 아니라 진로 및 취업 지도, 상담 및 생활지도 등 영재들의 교육적인 지도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즉 영재들의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학업 및 진로, 취업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영재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상담 및 생활지도 등 교육적 개입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배미란, 2002).

영재들의 성격에 대한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영재아 연구는 주로 영재들의 인지적 특성을 밝히려는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영재들이 지니는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한 Lombroso가 영재의 성격을 인기 없고, 괴팍한 것으로 제시한 이래(Janos & Robinson, 1985) 영재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학자들의 노력이 연구대상과 방법을 달리한 연구 진행을 통해 그 결실을 맺고 있다.

먼저 국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영재들의 성격특성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Silverman(1993)은 통찰력, 이해의 요구, 정신적 자극의 요구, 완벽주의, 정확성 및 논리, 유머감각, 민감성, 공감능력, 긴장감, 인내, 민감한 자기 감각, 비 순응성, 권위 규칙에의 도전, 내향적인 경향성 등을 영재의 성격특성으로 제시하면서 다섯 가지 측면에서의 영재의 특성 즉 심동적, 감각적, 상상적, 지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특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Getzels와 Jackson(1962)은 영재들의 성격특성으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Torrance(1962)와 Martinson(1973)은 건설적인 비판 성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영재아의 성격특성을 분석한 국내연구들은 일반아와 영재아의 성격 유형의 차를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영재아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영재아의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돕는 데에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예로 이혜영(2003)의 연구에서는 기질면에서 영재학생 집단이 높은 SJ형(책임감과 의무존중, 위계질서 존중, 보수적 가치관, 전통중시, 근면정신, 경험과 체득)을 나타내고 일반학생 집단에서는 SP형(자유스러움, 충동적, 스스럼없고 자발적, 흥취와 자극, 현재에 몰입, 행동적이며 용감, 도구 사용의 숙련성, 절충과 적응, 위기에 민첩하게 대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능면에서는 NT형(논리적,

창의적인 유형, 아이디어가 많음, 실천보다 개념 쪽, 수학 과학에 뛰어남)과 ST형(실제적이고 사실 중심적 유형, 실질적 사무적 실리적으로 강인함)의 분포가 영재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순진(200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양식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과학영재는 기질적으로 NF형(직관적 감정형)과 NT형(직관적 사고형)이 많았고, 일반학생은 NF형(직관적 감정형)과 SP형(감각적 인식형)에 주로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영재의 성격유형 기질별 특성에서 NF형(직관적 감정형)은 독립적 감정적인 반면 SJ형(감각적 판단형)은 의존적, 회피적인 선호를 나타냈으며 성격유형 기능별 특성에서는 NF형(직관적 감정형)과 SF형(감각적 감정형)이 참여적이었고 NT형(직관적 사고형)과 ST형(감각적 사고형)은 회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재아의 자아상태

영재들의 자아상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영재아와 일반아의 자아상태 간 차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는 연구. 영재아와 일반아 그리고 경도의 정신지체아를 대상으로 1990년에 진행된 Lian-Hwang(1990)의 연구와 청소년기 영재아 117명과 일반아 218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아상태를 비교한 Whalen과 Csikazentmihalyi(1989)의 연구, 언어와 수학에서 뛰어난 영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을 조사한 Brody와 Benbow(1986)의 연구 그리고 초등학교 4, 5학년의 영재아와 일반아의 자아개념 및 우울을 비교 연구한 Bartell과 Reynolds(1986)의 연구는 모두 영재아와 일반아 간 자아상태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영재아들의 긍정적인 자아상태를 제시하는 연구. 영재아와 일반아의 자아상태를 비교 연구한 대다수의 연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Coleman과 Fults(1983)의 연구, Ablard(1997)의 연구, Janos와 Robinson(1985)의 연구 외에도 국내에서 진행된 다수의 연구들이 영재아의 자아상태가 일반아 보다 긍정적이고 우수하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즉 초등학교 4, 5, 6학년 영재아와 일반아를 대상으로 실시된 문정화와 이승희(1993)의 연구에서는 영재아가 일반아 보다 더 조속하고, 높은 자아상태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더 권력이나 힘있는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1980년에 진행된 장언효와 조석희(1980)의 연구에서 영재아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영재아가 학습·동기·창의적 특성과 지도력, 사고력, 사회적 적응 등 모든 영역에서 우수함은 물론 자아상태 또한 일반아보다 긍정

적이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영재집단의 성차를 연구한 몇몇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전경원(1992)의 연구에서는 영재 남아와 영재 여아의 자아상태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는 반면, 문정화와 이승희(1993)의 연구에서는 영재 남아가 영재 여아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자아개념과 적응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셋째, Gross(1993)와 Montour(1977), Tannenbaum(1998)의 연구들은 영재아들의 부정적인 자아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영재의 자아상태에 대한 연구결과의 이러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내에는 영재아동의 자아상태를 밝히려는 연구는 물론 영재아의 자아개념에서의 성차 그리고 이들의 자아상태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밝히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은 아니다.

아동 개개인의 성격 및 자아상태와 같은 심리적 특성은 이들이 선호하는 학습양식과 학습방법뿐만 아니라 학업성취 수준에도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심리 상태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영재아와 일반아 그룹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영재아의 성격유형 및 자아상태의 차 그리고 영재아의 심리적 기능유형에 따른 자아상태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영재아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교육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교육활동의 효율과 성취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재단이 지정한 K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 초·중등 수학 과학 영재 2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성격유형 검사에서 검사결과 U-band에 속한 아동은 성격유형 지표번호에서 심리적으로 미분화된 것으로 의미하는 관계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자아상태 검사에서도 검사결과 오류를 보인 아동이나 반응누락자 또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초·중등 영재 230명만이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그중 영재 남자는 168명, 영재 여자는 62명이었다. 남녀 영재아를 대상으로 한 MMTIC 및 자아상태 검사는 영재교육원 지도교사에게 검사 방법을 설명해준 후 지도교사를 통해 대상 아동에게 검사지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검

사시간은 2008년 8월 18일부터 2008년 8월 22일 5일 동안 진행된 영재교육원 여름 캠프 기간을 이용하였다. 검사는 먼저 Ego-gram 질문지를 이용한 자아상태 검사부터 실시되었으며 1주일 후 MMTIC 검사가 실시되었다. 이중 자아상태 검사는 약 20분이 소요되었고, MMTIC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2. 검사도구

가. MMTIC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격검사도구 MMTIC(Murphy-Meisgeir Type Indicator For Children)는 1990년 Meisgeir와 Murphy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14쌍의 선호지표, 4가지 기능, 4가지 기질, 16가지 성격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심혜숙, 임승환, 1997). MMTIC(어린이 성격유형검사)의 한국표준화 작업은 1993년 김정택-심혜숙에 의해 만 8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 및 청소년 26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내용이 해나 문항구성, 사용방법에서 MBTI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검사 도구에 대한 검사-재검사 방법에 의한 신뢰도는 <표 1>과 같으며(김정택, 심혜숙, 1993) 현재 사용되고 있는 MMTIC 한국어판 검사지는 7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MMTIC 검사도구와 신뢰도

선호도	문항 수	문항번호	신뢰도
외향성(E)-내향성(I)	16	1, 2, 7, 9, 21, 24, 31, 45, 46, 52, 56, 59, 66, 68, 70	.71
감각형(S)-직관형(N)	18	5, 6, 13, 14, 16, 22, 26, 28, 30, 37, 43, 44, 50, 53, 58, 63, 64, 69	.75
사고형(T)-감정형(F)	18	3, 4, 10, 11, 12, 17, 18, 25, 29, 32, 34, 36, 38, 39, 42, 54, 61, 67	.64
판단형(J)-인식형(P)	18	15, 19, 20, 23, 27, 33, 35, 40, 41, 47, 48, 49, 51, 55, 57, 60, 62, 65	.71
계	70		

나. 자아상태(Ego-gram Check List) 점검표

본 연구의 검사도구인 Berne의 교류분석이론에 근거한 자아상태 점검표(Ego-gram Check List)는 한국교류분석협회의 우재현(1993)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

고, 신뢰도는 .74이며,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84, 기준에 의한 타당도 .87, 개념 타당도 .84로 보고되어 있다(한국교류분석협회, 1994).

자아상태 점검표는 5개의 지표마다 10문항씩 모두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비판적어버이자아상태(CP), 양육적어버이자아상태(NP), 성인자아상태(A), 순응적어린이자아상태(AC), 자유스러운어린이자아상태(FC)에 관해서 10문항씩 배정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척도(5점 평정 척도)로 각 지표 당 50점으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에너지가 그 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자료의 처리

수집된 자료는 검색과정을 거친 후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먼저 남녀 영재의 성격유형에 관한 선호지표별 분포 및 기질별 기능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MMTIC 한국판 표준화(김정택, 심혜숙, 1993)와 비교하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자아상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심리적 기능유형에 따른 자아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영재아의 성격유형

가. 영재아의 성별에 따른 성격유형

성격의 각 측면에서 영재아의 성별에 따라 성격유형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2> 참조), 성격유형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연관성은 판단 방식 측면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정적(F) 성격경향에서 남자 영재가 60% 여자 영재는 80%, 사고적(T) 성격경향에서는 남자 영재가 40% 여자 영재가 20%로 나타나 χ^2 검증 결과, 판단 방식 측면에서의 성별에 따른 연관성은 $\chi^2=8.90(df=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영재의 경우 남자 영재보다 월등히 많은 비율인 80%의 학생들이 다정다감하고 인간관계에 가치를 두며 동정적 헌신적인 감정 성향(F)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판단 방식 측면에 대한 검증 결과와는 달리 에너지 방향 측면과 정보수집 방법 측면, 생활양식 측면에 대한 χ^2 검증 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영재아의 성별에 따른 성격유형 분포

		E - I	S - N	T - F	J - P
영재	남자영재	107-61 (64-36)	53-115 (32-68)	68-100 (40-60)	11-157 (7-93)
	여자영재	41-21 (66-34)	19-43 (30-70)	12-50 (20-80)	5-57 (8-92)
χ^2		.11	.01	8.90***	.16
한국판 표준화		828-294 (73-26)	725-447 (61-38)	241-967 (19-80)	419-796 (34-65)
χ^2		48.37***	67.26***	29.81***	80.81***

*** $p < .001$ 단위: N(%)

또한 영재집단의 성별에 따른 성격유형에 관한 선호지표별 분포와 MMTIC 한국판 표준화를 비교하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에너지 방향과 정보수집, 판단방식 및 생활양식 측면에서 모두 남녀 영재집단과 한국판 표준화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에너지 방향과 정보수집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남녀 영재 모두 한국판 표준화 보다 내향적(I) 성격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 영재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집중을 하고 객관적인 상황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정보수집 측면에서도 남녀 영재 모두 한국판 표준화보다 직관적 성격경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관(N)의 비율이 일반아보다 영재아의 경우 훨씬 높다고 한 선행연구(정순진, 2007) 결과와 일치하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영재의 특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직관에 근거하여 본질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영재의 특성(정순진, 2007)이 성격 검사에서 직관형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생활양식 측면에서는 한국판 표준화와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판 표준화의 경우 판단적(J) 성격경향과 인식적(P) 성격경향의 비율이 28:53이었으나 남녀 영재집단은 90% 이상의 학생이 인식적(P) 성격경향을 나타내 보였다. 이것은 J-P의 지표에 있어서 과학영재의 인식형(P)이 일반학생보다 높아 과학 영재가 일반 학생보다 더 자발적이며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특성을 보여준다고 한 이해영의 연구(2003)와 일치되는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달리 판단방식 측면에서는 남자 영재와 여자 영재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판 표준화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 보인 여자 영재와 달리 남자 영재의 경우에는 사고적(T) 성격경향이 한국판 표준화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분석적으로 사고하여 객관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경향이 여자 영재나 한국판 표준화보다

남자 영재의 경우에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40%에 해당하는 남자 영재의 사고적(T) 성격경향의 비는 선행연구(정순진, 2007)에서 보여준 영재아의 사고(T) 비 32.1%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나. 남녀 영재의 기질별 기능별 성격유형의 특성

1) 남녀 영재의 기질별 성격유형의 특성

<표 3>과 같이 SJ, SP, NT, NF이 네 기질 면에서 볼 때 남녀 영재집단 모두 NF형(남자: 42%, 여자: 53%)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이들 두 집단 간 기질별 차이에 대한 χ^2 검증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남녀 영재집단과 한국판 표준화에서 나타난 네 기질별 차이를 χ^2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판 표준화에 비해 남녀 영재집단은 NT형의 분포가 월등히 높은 반면 SJ형의 분포는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집단의 이러한 NT형의 높은 분포 양상은 Lawrence(1984)와 최원현(2000)에 의해 진행된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조사나 문제해결 학습을 선호하는 NT형의 학습양식 그리고 Keirse와 Bates(1984)의 연구에서 제시된 지적인 호기심이 많고 어떤 문제에 대해 장기간 집중하여 해결하는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NT형의 선호 경향이 영재아의 성격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녀 영재아 모두 NF의 분포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초등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진행된 정순진(2007)의 연구에서는 NF형이 57.7%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또한 자아를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고 주관적 가치에 의한 강한 신념을 소유하는 그리고 학업성취가 높고 열성적이며 통찰적인 직관적 감정형(NF)의 선호경향이 영재의 성격유형과 조화되어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남녀 영재의 성격유형 기질별 특성

그룹	SJ	SP	NT	NF	χ^2	χ^2
남	8 (4%)	45 (26%)	45 (26%)	70 (42%)	4.25 (df=3)	122.46*** (df=3)
녀	4 (6%)	16 (25%)	9 (14%)	33 (53%)		
한국판 표준화	280 (29%)	294 (31%)	47 (5%)	340 (36%)		

*** $p < .001$ 단위: N(%)

2) 남녀 영재의 기능별 성격유형의 특성

<표 4>와 같이 ST, SF, NT, NF 이 네 기능면에서 볼 때 남녀 영재집단은 모두 NF형(남: 27%, 여: 14%)이 가장 높은 분포를, ST형(남: 15%, 여: 8%)이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남녀 영재집단의 기능별 차이는 χ^2 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이들 영재 집단과 한국판 표준화에서 나타난 네 기능별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ST, SF, NT, NF형 모두 남녀 영재집단이 한국판 표준화와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NT형에서는 영재집단과 한국판 표준화 사이에 다소 큰 격차를 나타내어 한국판 표준화와는 다른 영재집단만의 기능별 분포 양상을 읽을 수 있었다. 즉 한국판 표준화와 비교했을 때 영재집단에게서 NT형의 분포가 월등히 높은 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분석적인 사고를 즐겨하는 영재집단의 특성이 과학적, 이론적 분야에 잘 적응하는 직관적 사고유형으로 표현된 결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즐기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으며 창의적인 성향이 강한 영재아들에게 있어 보수적이고 전통적, 통제적인 성향을 지닌 감각적 사고유형(ST)과 감정에 의한 판단 활동을 즐겨하는 감각적 감정유형(SF)이 한국판 표준화보다 적은 분포를 나타내는 것은 영재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표 4> 남녀 영재의 성격유형 기능별 특성

그룹	ST	SF	NT	NF	χ^2	χ^2
남	25 (15%)	28 (16%)	45 (27%)	70 (42%)	7.24 (df=3)	118.84*** (df=3)
여	5 (8%)	15 (24%)	9 (14%)	33 (53%)		
한국판 표준화	153 (16%)	412 (43%)	47 (5%)	340 (36%)		

*** $p < .001$ 단위: N(%)

2. 영재아의 자아상태

가. 영재아의 성별에 따른 자아상태

영재아들의 성별에 따른 자아상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유스런어린이자아($t=-2.37,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여자 영재($M=12.48$)가 남자 영재($M=10.91$)보다 자유스런어린이자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여학생의 자유스런어린이자아가 남학생보다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우재현, 1991; 남경숙, 1995)에서 남녀 간의 양육적어버이자아(NP) 상태를 비교한 결과,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양육적어버이자아상태가 높다는 일반적 통념이 부정되었던 연구 결과들이 남녀 영재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영재아의 성별에 따른 자아상태

성별 자아상태	남		여		t
	M	SD	M	SD	
비관적어버이(CP)	10.97	2.73	10.42	3.21	1.11
양육적어버이(NP)	11.81	3.95	12.84	3.31	-1.55
어른(A)	12.25	3.15	12.68	3.18	-0.78
자유스런어린이(FC)	10.91	3.74	12.48	3.92	-2.37*
순응하는어린이(AC)	10.04	9.79	9.81	3.37	.14

*** $p<.05$ 단위: N(%)

나. 영재아의 심리적 기능유형에 따른 자아상태

<표 6> 영재아의 심리적 기능유형에 따른 자아상태

자아상태 성격유형	CP	NP	A	FC	AC
감각적사고유형 (ST)	10.77 (2.54)	10.50 (5.27)	11.50 (2.92)	10.36 (3.68)	10.31 (3.21)
감각적감정유형 (SF)	10.72 (3.10)	12.48 (3.04)	12.62 (3.15)	10.64 (3.78)	9.16 (2.51)
직관적사고유형 (NT)	11.48 (2.72)	10.20 (2.91)	11.97 (3.45)	11.05 (3.56)	8.62 (3.18)
직관적감정유형 (NF)	10.52 (2.88)	13.20 (3.59)	12.70 (3.09)	12.04 (3.97)	10.90 (12.47)
F	.90	7.07***	1.09	1.77	.68

*** $p<.001$ M(SD)

본 연구에서는 자아상태와 성격특성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증명한 선행연구(이병래, 1998; 남경숙, 1995; 서준석, 2001)에 근거하여 영재아의 성격 특성은 자아상태 특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이용해 영재아의 성격유형에 따라 자아상태 요인별 점수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심리적 기능유형에 따른 자아상태 기능 점수를 비교해 보면, 감각적 사고유형(ST)에서는 어른자아(A)에 심리적 에너지가 가장 많이 분배된 반면, 순응하는어린이자아(AC)에는 가장 적게 분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감각적 감정유형(SF)은 책임, 인화, 화해의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온정적인 가족형으로 동정, 친절, 헌신적이고 인간 중심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서준석, 2001).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따뜻하고 온정적이며 양육적, 보호적, 관용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양육적어머니자아(NP)의 심리적 에너지는 높게 나타났고, 반면 권위자의 지지나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 주장을 억누르고 상대의 눈치를 보는 성향이 강한 순응하는어린이자아(AC)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관적 사고유형(NT)에서는 어른자아(A)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 순응하는어린이자아(AC)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직관적 감정유형(NF)은 열정적, 통찰적인 유형으로 주관적 가치와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어 인간에 대한 관심과 열정, 인화, 성장을 끌어내는 특성(정순진, 2007) 때문에 동정적이고 애정적이며 타인에 대하여 수용적이고 친절한 특성을 가진 양육적어머니자아(NP)에서 가장 높은 심리적 에너지 배분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양육적어머니자아와 상반된 특성을 보이는 비판적어머니자아(CP)는 가장 낮은 양상을 나타내 보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감각적 사고유형(ST)과 직관적 사고유형(NT)을 소유한 영재아는 어른자아(A) 상태가 높고, 순응하는어린이자아(AC)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감각적 감정유형(SF)과 직관적 감정유형(NF)의 영재아는 양육적어머니자아상태(NP)가 높고, 순응하는어린이자아(AC)와 비판적어머니자아(CP)가 낮은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자아상태유형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기준으로 삼는 감정형(F)과 사고형(T)의 성격 특성과 관련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심리적 기능유형에 따른 자아상태의 기능 점수를 분석한 결과 양육적어머니자아상태(NP)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따뜻한 온정과 헌신을 추구하며, 정열적이고 통찰적인 특징을 보이는 직관적 감정유형(NF형)의 양육적어머니자아상태가 가장 높았고 인화나 친목보다는 이론적 가능성과 논리적 특징을 추구하는 직관적 사고유형(NT)의 양육적어머니자아상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성격유형이 자아상태의 에너지 분배와도 깊은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성격유형과 자아상태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심리적 특성들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많은 심리학자들은 Jung의 이론에 근거한 인간의 심리적 성격유형과 Berne의 이론에 근거한 자아상태 유형이 분명 인간의 정서적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뿐만 아니라 학습능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Schaefer와 Bayley, Parker 등의 여러 학자들(Schaefer & Bayley, 1963; Parker & Asher, 1987; Patterson, Kupersmidt, & Griesler, 1990; Honig & Wittier, 1994)에 따르면, 한 개인이 자신의 사고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지니게 될 때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Jung과 Berne 이 두 이론은 심리적 에너지의 역동성을 기초로 하고 있어 서로 어떠한 연관성이 있음이 여러 학자들(Berne, 1964; 이현정, 2006; 정선심, 2006)에 의해 연구되어 오고 있고 이들 모두는 이러한 Jung과 Berne의 이론을 활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인 면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나아가 인간관계능력이나 학습능력까지도 발달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오고 있다. 특히 영재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장래 이들이 펼치게 될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아동 및 청소년기에 있는 영재들의 성격유형과 자아상태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여 영재아들이 지니는 심리성향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며 영재교육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개인의 성격유형과 자아상태에 대한 면밀한 탐색 활동과 이것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그 후 이러한 정보에 근거해 이들이 안고 있는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지도방안과 이들에게 맞는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심리지원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재아를 대상으로 남녀 영재들의 자아상태와 성격유형의 차이 그리고 성격유형의 기질별, 기능별 특성을 알아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영재아들의 성격이나 인성적인 측면 그리고 이들의 행동적인 면들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는 지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제시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와 논의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아의 성별에 따른 성격유형을 분석한 결과, 판단방식 측면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재집단의 성격경향은 에너지 방향, 정보수집, 판단 방식 및 생활양식 측면 모두에서 한국판 표준화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에너지 방향에 있어서 한국판 표준화 보다 영재집단이 외향(E)의 분포가 더 낮았고 내향(I)의 분포는 더 높아 영재아들이 자신에 대해 집중하는 성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정보수집 측면에서는 영재아들에게서 직관(N)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찰을 통해 가능성이나 의미 관계 등을 인식하는 특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영재아들이 보이는 이러한 성격경향에 대해 김유미(2008)는 영재교육원에서 경험하는 도전적 탐구과제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 이들의 성격특성에 크게 기인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둘째, 영재아의 기질별 기능별 성격유형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녀 영재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 이들 영재집단을 한국판 표준화와 비교한 결과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질 면에서는 한국판 표준화에 비해 NT형의 분포가 월등히 높은 반면 SJ형의 분포는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 면에서는 NT형의 분포가 한국판 표준화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양식의 차이를 밝혀낸 선행연구(정순진, 2007; 최원현, 2000; Lawrence, 1984; Keirse, 1982)에 근거하여 위의 연구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논하자면, 일상적이고 의존적인 학습자인 SJ형 학습양식(Keirse, 1982)보다는 개념적이고 독립적인 학습자인 NT형에게 맞는 즉 원칙을 이해하고 정보를 찾는 과제나 장기간의 프로젝트형 학습활동을 경험하도록 하는 학습 환경(Keirse, 1982)을 제시해주는 것이 영재들에게 적합한 학습전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녀 영재아들에게 있어 NF형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정순진(2007)은 이러한 영재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작용의 기회가 있는 집단토론과 같은 학습양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셋째, 영재아들의 성별에 따른 자아상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판적어버이자아(CP)와 양육적어버이자아(NP), 어른자아(A), 순응적어린이자아(AC)에서는 남녀별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유로운 어린이자아상태(FC)에서는 영재 남아보다 여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일반아를 대상으로 남아와 여아의 자아상태를 분석한 장선심(2006), 최윤정(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장선심(2006)은 여학생의 자유스런어린이자아가 남학생보다 높은 분석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이성적으로 사고하려는 경향이 더 높은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이다. 성은현의 연구(1998)에 따르면 이러한 여학생의 자아상태는 20대에서 30대로 되면서 또 결혼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없어진다고 한다.

셋째, 심리적 기능유형에 따른 자아상태의 분석 결과, 영재아의 자아상태유형은 행동 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감정형(F)과 사고형(T)의 성격 특성과 관련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주관적 개인적인 가치에 의해 판단하고 타인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감정형(F)은 양육적어버이자아(NP)가 높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객관적 사실과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사고형(T)은 어른자아(A)가 높은 반면 순응하는어린이자아(AC)는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아상태는 성격의 심리기능 유형에 따라 일정한 양상을 나타내며, 성격적 특성이 자아상태의 에너지 분배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남경숙(1995)의 연구결과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격적 특성에 따라 그 사람의 자아상태에 분배되어 있는 심리적 에너지도 일정한 방향이 있고 이것을 통해 성격이나 자아상태 모두 심리적인 에너지의 역동성을 근본으로 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이에 영재아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육 현장에서는 자아상태나 성격검사를 통해 각 영재아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이것에 근거하여 이들의 성격유형과 자아상태에 맞는 학습스타일이나 학습전략을 체계화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수학습활동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한 개인의 성격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적인 면과 출생 후 접하게 되는 환경적인 면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성격유형은 그 사람의 자아가 형성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성격유형과 자아상태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한 인간의 정신 기능이 형성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한 사람의 자아상태와 그 사람이 지니는 성격유형과의 상호작용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 물론, 인간의 자아상태가 사고 및 감정 등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역동적으로 관계하고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 양식들을 종합한 하나의 체계인 관계로, 한 개인의 자아상태에 미치는 성격의 영향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다. 이 뿐만 아니라 영재아의 성격과 자아상태와의 관계를 밝히려는 선행연구가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제시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자아상태와 성격유형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론적 접목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영재학생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K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 1개 기관의 초·중등 영재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대상 표집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참 고 문 헌

- 김유미 (2008). 5요인 성격모형을 이용한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특성 비교.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택, 심혜숙 (1993).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 안내서.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 심혜숙 (2000). 16가지 성격유형의 특성.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남경숙 (1995). MBTI의 성격유형과 Ego-gram의 자아상태와의 관계.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정화, 이승희 (1993). 인문화 검사를 통한 영재아와 비영재아의 심리적 특성 비교. 영재교육연구, 2(1), 239-251.
- 방희정 (1996). 성고정 관념: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실체. 김태련외 '5인. 여성 심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배미란 (2002). 5요인 인성 모형에 기초한 과학영재들의 성격 연구. 연세교육연구, 15(1), 55-75.
- 서준석 (2001). 교사의 성격유형과 자아상태와의 관계: MBTI의 4가지 심리기능과 교류분석의 Ego-Gram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은현 (1998). 성별, 결혼, 연령이 성격 차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3(1), 51-63.
- 심혜숙, 임승환 (1997). 성격과 삶의 양식.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우재현 (1991). 심성 개발을 위한 TA프로그램. 대구: 우신출판사.
- 우재현 역 (1993). 이고그램. 대구: 정암서원.
- 이병래 (1998). 유치원 교사의 성격유형과 자아상태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3(2).
- 이순형 (1995). 여성의 심리(하). 양서원.
- 이현정 (2006). 사립유치원 교사의 에고그램에 의한 성격유형과 역할수행인식과의 관계.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영 (2003). MBTI를 이용한 영재학생의 성격유형 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선심 (2006). 초기 청소년의 자아상태 및 인생태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언효, 조석희 (1980). 영재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118.

- 장휘숙 (1996). 여성 심리학-여성과 성차. 서울: 박영사.
- 전경원 (1992). 휴머니즘에 입각한 특수한 영재교육. 양서원.
- 정순진 (2007).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습양식 비교.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숙자 (1996). 사회 행동의 발달과 성차. 김태련 외 5인. 여성심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최윤정 (1999). 청소년의 자아상태와 공격성의 관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원현 (2000). MMTIC에 의한 초등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습양식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류분석학회 (1994). 교류분석(TA) 체크리스트. 대구: 정암서원.
- Ablard, K. E. (1997). Self-perceptions and needs as a function of type of academic ability and gender. *Roeper Review*, 20(2), 110-115.
- Bartell, N. P., & Reynolds, W. M. (1986).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academically gifted and nongifted children: A comparison stud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4(1), 55-61.
- Berne, E. (1957). Egostates in psychotherapy, *Amer J Psychoth*, 11, 293-309.
- Berne, E. (1964). *Games people play*. New York: Grove Press.
- Best, D. L., & Williams, J. E. (1993). A cross-cultural viewpoint. In A.E. Beall & R.J. Sternberg(Eds.), *The psychology of gender*(215-248). New York; Guilford Press.
- Brody, L. E., & Benbow, C. P. (1986). Social and emotional adjustment of adolescents extremely talented in verbal or nathemtical reason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5(1), 1-18.
- Coleman, J. M., & Fults, B. A. (1983). Self-concept and gifted children. *Roeper Review*, 44-47.
- Fairhust, A. M., & Fairhurst, L. L.(1995). *Effective teaching effective learning: Marking the personality connection in your classroom*. Palo Alto, Davis-Black, Inc.
- Getzels, J. W., & Jackson, P. W. (1962). *Creativity and Intelligence*. London: John Wily and Sons.
- Gross, M. U. M (1993). *Exceptionally gifted children*. NY: Routledge.
- Honig, A. S., & Wittmer, D. S. (1994). Encouraging positive soci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49(5), 4-12.
- Janos, P. M., & Robinson, N. (1985). Psychological development in intellectually gifted children. In F. D. Horowitz & M. O'brien (Eds.), *The gifted and talented*:

- Developmental perspectives* (pp. 149-196).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eirsey, D. (1982). *Word Learning with Hierarchy Guided Inferenc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AAI-82, Pittsburgh)*. Los Altos, CA: Morgan Kaufmann.
- Keirsey, D., & Bates, M. (1984). *Please understand me*. Del Mar, CA: Prometheus Nemesis.
- Lawrence, G. (1984). A synthesis of learning style research involving the MBTI.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 Lian, Hwang (1990). Self-esteem of gifted, normal and mild mentally handicapped children, *Adolescence*, 27(3), 263-268.
- Martinson, R. A. (1973). The Identifi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National State Leadership Training on the Gifted and the Talented*, 176-182.
- Montour, S. (1977). William James Sidis, the broken twig. *American Psychologist*, 32, 265-279.
- Myers, I. B., & McCaully, M. H. (1985).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tterson, C. j., Kupersmidt, J. B., & Griesler, P. C. (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49.
- Schaefer, E. S., & Bayley, N. (1963). Maternal behavior child behavior, and their intercorrelations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8(3).
- Schurr, K. T., Henriksen, L. W., Alcorn, B. K., & Dillard, N. (1992). Tests and Psychological Types for nurses and teachers: Classroom achievement and standardized test scores measuring specific training objectives and general ability.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23, 38-44.
- Silverman, L. K. (1993). The Gifted Individual. In L. K. Silverman (Ed.), *Counseling the gifted and talented*. Colorado: Love Publishing Company.
- Tallmage, G. K., & Shearerm J. W. (1969). Relationships among learning styles, instructional methods and the nature of learning experiences. *Journal of Educa-*

tional Psychology, 60, 222-230.

- Tannenbaum, A. J. (1983). *Gifted children: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perspectives*. NY: Macmillan.
- Torrance, E. P. (1965). *Rewarding creative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Waldrop, M., & Halerson, C. (1975). Intensive and extensive peer behavior; Longitudinal and cross-section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436, 19-26.
- Whalen, S., & Csikazentmihalyi, M. (1989). A comparison of the self-image of teenagers with a normal adolescent popul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2), 131-146.

= Abstract =

Gifted Students' Personality and Types of Ego-gram Based on Eric Berne's Transactional Analysis

Lee Soon Joo

Hanbat National University

Park Chan Oung

Kyung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gifted students' gender difference in ego state and personality,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nctional types and the temperable types in personality traits and relations between gifted students' ego state and their personality traits by Ego-gram test based on Berne's personality theory and MMTIC test based on Jung's psychological theor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30 of gifted students of K Gifted Center. The data analyzed by chi-square, t-test, one-way anova in accordance with each research ques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material data for academic and career counseling and for guidance in students' human relationship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the ego state and personality traits in two dimensions. Second, gifted studen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from Korean standardization in the functional types and the temperable types of personality.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olid relations between the types of ego-gram and personality of gifted students.

Key Words: Gifted student, Personality, Ego state, Ego-gram test, MBTI test

1차 원고접수: 2009년 2월 25일
수정원고접수: 2009년 4월 8일
최종게재결정: 2009년 4월 24일